

에코프로 형제 '과열' 순매도에 상승하던 2차전지株 브레이크

한국거래소
이번주 에코프로·비엠 급하락세
개미들, 3거래일간 총 734억 팔아
“단기 과열… 펀더멘탈 요인 부족
투자의견 매수→중립 하향 조정”

코스닥 '대장주' 중 하나인 에코프로 비엠을 두고 고평가 의견이 확산되면서 2차전지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높아진 만큼 성장성은 견고하나 '단기간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다.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던 '에코프로 형제주'의 주가도 최근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8.78%, 에코프로비엠은 5.2% 급락했다. 올들어 증시를 달궜던 2차전지주 약세와 함께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에코프로는 올해 10만3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11일 8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더불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이 높아졌으나 2차전지주에 대한 열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다만 에코프로 형제주인 에코프로비엠을 두고 '과열'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8일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랐으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펀더멘탈(실적·기업 가치평가 등) 요인이 부족했다”며 “위험-보상(Risk-Reward) 관점에서 단기 투자 매력도가 하락해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정 밸류에이션 밴드를 넘어선 '단기적 과열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에코프로비엠의 현 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59배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의 43배를 훌쩍 넘겼다.

전 연구원은 “주가가 이익증가비율(PEG) 또한 과거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해 적정 매수구간을 벗어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17만 원에

서 27만 원으로 올렸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달 4일부터 에코프로비엠을 순매도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을 575억4782만원 순매도했으며, 에코프로 역시 9일 159억1041만 원 가량의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도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물량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지난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1·2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다. 외국인들은 5월 들어 에코프로를 1894억2829만 원, 에코프로비엠을 538억9837만 원 어치 순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깜짝실적' 키움증권, SG사태에 주가 부진

1분기 영업익 3889억, 82% ↑
당기순익 107% 오른 2924억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연루
주가 0.22% 하락 9만1000원 마감

올 1분기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열풍으로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키움증권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다만 SG 주가 폭락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실적 호조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9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8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3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7.45%, 107.27% 급증한 3조767억원, 29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 및 우호적인 금리 환경에 따른 운용 손익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주가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9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키움증권은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되며 지난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들이 키움증권의 주식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173억원,



/키움증권

241억원 매수에 나서고 있었으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리테일 채널에 높은 약점 점유율로 인해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차액결제거래(CFD) 익스포저(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우려와 감독당국의 CFD 관련 검사, 현재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지연 가능성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가는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통으로 CFD 미수채권 발생이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CFD발 손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서고 있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과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고 양호한 실적으로

향후 키움증권이 충당금 적립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CFD 우려로 키움증권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CFD 신규가입 중단 및 향후 금융위의 CFD 제도개선 등으로 향후 CFD 관련 손익이 위축될 공산이 커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크게 부진할 것”이라며 “CFD 사태와 최근의 거래대금 감소를 근거로 업종 상승 모멘텀이 부제한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CFD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주가는 악재를 기반했었고 현 이슈가 수조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고 보유에서 오는 우려보다는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기 2000억원대 수준 체력은 향후 미수채권 충당금 적립 및 손실 등도 감내할 수 있다”며 “일부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상황 가정해도 타 브로커리지 수익 규모가 더 크기에 업사이드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주가 순자산비율(PBR) 0.5배 수준의 현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 저평가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PER 역시 3.5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장 굴착기에 부착된 추후방 카메라(왼쪽) 및 디스플레이 내 인체 인식 장면. /DL건설

DL건설, 굴착기 AI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현장 의무적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DL건설이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DL건설은 10일 “전 현장 내 굴착기 및 지게차에 해당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중장비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영상 인식 시스템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카메라를 부착, 해당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을 AI가 직접 판단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DL건설은 “장비 협착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현장에서 초음파를 활용한 장비가 활용되고 있었다. 기존 초음파 방식은 사람과 사물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 작업 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알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 현장에 적용되는 AI 영상 인식 시스템은 전후방 및 추후방 카메라를 부착해 중장비 사용 시 사각지대 없이 시야를 확보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건설, 태안에 모빌리티 경험도시 건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현대건설이 충남 태안군에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민관협력체제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태안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고품격·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거점지역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형' 분야에서 최종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현대도시개발,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등 분야별 최고의 스마트 솔루션 보유 기업과 함께 태안군 원도심과 기업도시를 아우르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시설 '태안군 UV랜드', 다채로운 드라이빙 체험이 가능한 현대자동차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 등 태안군에 위치한 모빌리티 경험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내 잠재해있던 관광 자원을 본격 가동한다. ICT 기반의 네트워크를 원도심으로 확장해 안정적인 정주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금투협,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기준금리 동결, 해외물가 상승 영향

지난 4월 국내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해외물가 상승에도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및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의 '2023년 4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93%로 전월에 비해 2.3bp(1bp=0.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1.8bp, 2.0bp 오른 연 3.292%, 3.360%로 집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

상치를 넘어서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실업급여 청구건수 증가 및 제조업지수 하락 등 미 경기 둔화 신호에 따라 상승분을 되돌리며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통안증권과 금융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은 국채와 특수채, 통안증권, 회사채 등의 순발행이 18조8000억원 늘면서 266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든 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원관희 기자